

“자유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고하 송진우의 사상과 헌신적 실천”에 대한 토론문

김 명 구 (월남시민문화연구소장)

그동안 한국 사학계나 정치학계에서 고하 송진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특별히 그가 3.1운동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에 논쟁적으로 접근했다. 그의 근현대사적 공헌을 크게 인정하지 않았고, 특별히 한민당의 활동을 냉소적으로 대하며 고하의 활동을 여기에 제한해 왔다. ‘고하 송진우선생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학술대회는 고하의 활동과 사상을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그간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교정할 것이다. 특별히 박찬욱 교수의 “자유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고하 송진우의 사상과 헌신적 실천”은 보다 풍성한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을 보면,

박찬욱 교수의 발표 논문은 고하의 “민족주의 사상의 전개”, “일본 유학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형성”, “3.1 운동”, “언론인 민족민주운동가”, “자유권과 생존권의 조화를 모색한 자유민주주의자”, “해방 직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한 투쟁”의 6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고하의 생애와 사상을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관되게 고하의 사상과 실천노선을 진보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한다.

박찬욱 교수는 고하가 10대 후반 이후부터 일관되게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한 동전의 양면처럼 일체화시켰다는 것이다. 고하는 평생 민족불멸론을 굳게 믿고 설파했는데, 그 시작은 유소년기부터 한학을 익히면서 항일민족주의를 내면화했다고 주장한다.

발제자는 1908년 10월 독일한 고하가 인촌과 함께 와세다대학 예과에 입학한 후 한일강제병합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왔다가 1911년 다시 돌아가 메이지 법과로 전학했다고 확인한다. 발제자에 의하면, 이 시기의 고하는 다이쇼민주주의의 열풍 속에 있던 일본 대학가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자유민권 사상에 심취하고 자신의 사상적 대전환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때의 고하가 배타적(chauvinistic) 국수주의자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로 발전한 자유, 평등, 민주에 관한 사상을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고하가 조선 민족의 의로움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호전적 주전론(jingoism)을 배격하고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를 1925년에

고하가 쓴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1925), 곧 한국이 구미(歐美)의 자유 정신과 근대 과학문명을 습득해 일본의 군국주의를 배척해야 한다고 한 논설을 예로 들었다.

발제자는 고하가 강력한 민족주의자임을 확인하고 있는데, 독립운동가 이강훈의 증언을 들어 1926년 5월부터 1930년 1월 사이에 거액의 독립자금을 여러 차례 송금했다는 것과 동아일보 정간 사건 관련해 6개월의 수감생활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고하의 항일민족주의는, 1931년에 발생한 ‘만보산 사건’을 처리한 것에서 보듯이, 감정에 경도되지 않았고 이성적 판단 아래 신중히 접근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발제자는 고하가 확신한 ‘조선민족 불멸론’이 ‘일제 필망론’으로 귀결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신념 아래 국내의 독립운동가와 지식인들이 일제의 압력과 오인된 시국관에 의해 황국신민화, 일제의 침략전쟁 정당화, 조선인의 징병과 징용 권유 등에 협력했을 때도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다고 피력한다.

박찬욱 교수는 1910년 와세다 예과 시절부터 메이지대 법과를 졸업한 1915년까지 독서 활동, 유학생들과의 친교, 일본 지식인들과의 교류 등 왕성하게 활동했고 이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으로의 대전환을 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기독교인과 진지한 교류가 없었던 고하가 일본에 와서 기독교를 신봉하는 유학생 동료와 선후배를 만나고 대화했다고 밝힌다. 이를 통해 신부적(神賦的) 인간관에서 출발하는 만민평등과 같은 기독교 사상을 본격적으로 접했다고 판단한다. 그의 근대 사상이 장덕수, 김성수, 현상윤, 백남훈 등 조선 유학생들과 도쿄제국대 정치학 교수로 기독교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를 비롯해 일본인 자유주의 지식인과 접촉을 통해서였다고 본 것이다. 덧붙여 다이쇼민주주의를 신봉하던 당시의 일본 대학사회가 진보적 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음도 피력한다.

발제자는 고하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옹호했지만, 국가와 정부가 빈부 차이를 완화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적극적 기능을 강조한 진보적 자유주의(progressive liberalism)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헌주의 원리에 따른 권력 제한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경제적 측면에서, 공공선을 위해, 적극 사유재산제 제한이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박찬욱 교수는 고하가, 자신이 주도한 유학생친목회 회보인, 《학지광(學之光)》 1915년 5월호에 실은 “사상개혁론”을 통해 사상적 전이가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고하가 현자 정치를 강조했던 “공교(孔敎)[공자의 가르침]를 배경하는 한편, 동시에 단군을 예찬하는 국수(國粹)의 발휘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문벌 중심의 가족제를 타파해야 하고 자유연애의 고취 등 개인의 자립 추구를 주장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것이 서구의 근대적인 정신을 수용하면서도, 조선 고유의 정신과 상징을 지키려 했던, 고하의 민족주의적 발로라고 주장한다.

‘3.1운동’ 부문에서 발제자는 고하가 3.1운동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과정과 그 사상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이를 통해 송진우가 3.1운동의 책임자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발제자는 고하가 1925년 8월과 9월 동아일보에 연속 발표된 논설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를 통해, 한국인들이 3.1운동이 전대미문의 대혁신 사건으로 독립국가 건설을 향한 강한 염원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갑오동란[동학농민혁명]”과 “근왕(勤王) 사상의 의병운동”과 다르게 인식하고 각성했다는 고하의 의식을 피력한다. 한국인들이 3.1운동을 계기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갈구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의 지향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고하의 동아일보 언론 활동이 문화 민족주의적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정치적 실천이었다고 주장한다. 일제가 정한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지향했고 일제 체제에 대한 저항을 노골화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1937년 6월까지 네 차례나 정간을 당하고 1940년에는 폐간을 강요당했다고 피력한다. 친일주의자 박춘금으로부터는 죽임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발제자에 따르면, 1925년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1회 범태평양민족회의에 조선 대표의 일원으로 참석한 고하는 여기에서 이승만을 만났다. 그리고 귀국 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5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논설을 게재했다. 내용은 3.1운동에 이르는 조선 역사와 민중의 각성을 이룬 진화 과정, 세계정세 흐름이었다. 여기에서 고하는 장차 미국과 소련간의 대결을 예견한다. 덧붙여 소련을 “적나라하게 세계적으로 난봉 행세를 하는 적로(赤露)”라고 규정했고 미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모범국”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조선 문제는 열강에 맡길 수 없고 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박찬욱 교수는 고하의 논설을 이렇게 정리했다.

발제자는 1925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회에 걸쳐 동아일보 사설로 발표한 고하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소개하면서 그의 사상이, 논문의 앞부분에서 주장한, 진보주의적 자유주의이며 그 사상이 수석 총무가 되었던 초기 한민당까지 연결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하가 인간의 사람됨을 잃지 않기 위한 조건으로 생존권, 생활권적 기본권의 확보를 주장했고, 국가는 각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고하에게 자유권과 생존권은 분리할 수 없고 상호 균형이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 계급 갈등과 폭력혁명으로부터 자유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는 논리였다. 여기에서 고하는 자유권을 위협하는 러시아혁명이 아니라 자유권과 생존권 요구가 함께 가는 영국 노동당이나 일본 무산정당과 같은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았다. 덧붙여 이러한 고하의 선택이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상에서 외연된 것이라고 진

단했다.

박찬욱 교수는 해방 직후, 고하가 몽양과 달리 조선총독부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패전 임박의 일제와 타협하는 것이 일제의 괴뢰가 되는 것이 되고 승전 연합국의 인정을 받지 않는 통치권 이양은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던 건준 참여를 거절하고 임시정부와 연합군 환영을 위한 국민대회준비회 결성을 주도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의 일환으로, 임정을 유일하게 연합군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을 주체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국민대회준비회는 9월 8일 한국민주당(한민당) 발기총회로 연결되었다고 보았고, 윤덕영의 논문에 의거, 한민당 초기 조직이 동아일보와 기호 세력이 주도하고, 기독교 양대 계열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연합해 결성되었다고 결론지었다. 특별히 김약수, 박명환, 원세훈, 유진희, 정노식 등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10% 정도였고, 부장급 이상 간부 36명 중 친일 혐의 인사가 14%이었다는 것도 밝혔다. 따라서 송진우가 이끌 당시의 한민당 성격을 극우, 보수, 친일로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물론 고하가 한민당의 구심점이었다는 것을 발제자는 확인하고 있다.

박찬욱 교수는 한민당의 5대 강령에 고하의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잘 스며있다고 본다. 고하의 한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자주독립국가를 지향했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제 평화를 증진할 것을 주창했다는 것이다. 특히 강령 제3항에 자유권과 생존권의 균형을 역설했던 고하의 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했다. ‘경제적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제3항은 특별히 산업의 국유화와 토지의 합리적 재편성, 즉 토지개혁으로 연결되었다. 그것은 1945년 12월 22일에 있는 고하의 라디오 방송, 곧 “정치적 측면의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고 한 것에서 확인이 된다.

1945년 1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 회담의 결정이 28일과 29일 국내에 알려지고 그 결정 가운데 신탁통치 조항만 크게 부각되었을 때, 임정 세력은 “맨주먹 붉은 피로써” 미군정과의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반탁 입장을 즉각 표명했다. 고하는 미군정과의 충돌을 피하는 신중한 반탁을 주장했다. 발제자는 그의 신중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30일 새벽 56세의 나이로 암살되는 비운을 맞았다고 판단했다.

논문의 말미에 발제자는 고하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가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보완책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점에서 고하의 노선은 옳았다고 판단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공산당 독재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이 세계사적으로 입증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토론자의 의무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박찬욱 교수는 고하가 1896년 들어 성리학자이며 의병장이었던 기삼연(奇參衍)의 제자가 되어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에 접하고 항일의지를 굳게 다졌다고 피력했다. 이것을 항일민족주의를 내면화의 계기가 되었는데, 1906년 4월 담양 창평의 영학숙(英學塾)에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고하의 민족주의가 배일 저항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고하의 항일민족주의가 위정척사 사상에서 시작되었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성리학적 세계관 속에 민족주의 의식이 들어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동양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명치천황의 시독(侍讀)이었던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였다. 1872년 카토는 독일 공법학자 요한 카스파 블룬칠리 (Johann Caspar Bluntschli)의 *Allgemeines Staatsrecht*(일반헌법)를 『국법범론 國法汎論』의 이름으로 번역해 발간했다. 여기에서 카토는 블룬칠리가 말한 ‘state, volk, nation’의 개념을 각각 ‘국가, 국민, 민족’으로 표현했다. 이를 중국의 양계초가 받아들였고 한국에서 지금과 같은 개념의 ‘민족’의 의미는 『대한매일신보』에 처음 등장해 다음 해부터 보편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왕들은 “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국왕의 애휼(愛恤)의 대상으로서 의미였다. 신분제가 엄격했던 조선의 성리학적 전통 사회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가진 수평적 의미의, 곧 내부적 동질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하가 성리학적 세계관을 통해 민족주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주장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제자는 고하가 다이쇼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자유민권 사상에 심취하고 자신의 사상적 대전환을 이루었다고 밝힌다. 발제자는 이때의 고하가 배타적(chauvinistic) 국수주의자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로 발전한 자유, 평등, 민주에 관한 사상을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발제자는 <학지광(學之光)> 1915년 5월호에 실은 “사상개혁론”을 통해, 고하가 공교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한편 단군을 예찬하는 국수를 발휘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서구의 근대적인 정신을 수용하면서도, 조선 고유의 정신과 상징을 지키려했던, 고하의 민족주의적 발로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확인해봐야 하는 것은 고하의 의식 속에 사상적으로 다이쇼민주주의의 특성인 자유와 평등, 민주 개념과 단군사상이 갖고 있는 국수성은 사상적 부딪침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박찬욱 교수는 5.16쿠데타 주체세력이 초기에 내건 “민족적 민주주의”를 언급했는데, 이 슬로건의 무게 중심은 민주주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에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하의 사상이라고 규정한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조선 고유의 정신과 상징”이라 표현했는데, 국수주

의 단군사상이 조선 고유의 정신을 상징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토론자가 보기에, 고하가 3.1운동의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 민주의 개념을 가진 기독교계가 아니라 국수성을 특성으로 갖고 있던 천도교를 처음 설득의 대상으로 여긴 것을 보면, 최소한 3.1운동 때까지 고하 사상의 추는 민족주의에 좀 더 기울여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 발제자는 1925년에 고하가 중요한 논설을 발표하는데, 곧 1월에 발표한 “자유권과 생존권”과 8월과 9월 동아일보에 연속 발표된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이 그것이다.

발제자는 1925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회에 걸쳐 발표한 논설 “자유권과 생존권”을 해석하면서 고하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옹호했지만, 국가와 정부가 빈부 차이를 완화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적극적 기능을 강조한 진보적 자유주의(progressive liberalism)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고하가 고전적 자유주의 아래에서 펼쳐지는 권력 제한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경제적 측면에서, 공공선을 위해, 적극 사유재산제 제한이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제자는 고하의 이러한 사상이 일본 유학 시절, 다이쇼 민주주의를 신봉하던 당시의 일본 대학 사회로부터 습득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토론자의 생각에 고하의 인권에 대한 의식은 1921년 9월 15일부터 1924년까지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하면서 확정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의 인권 의식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그의 절친으로 여겼던 장덕수를 비롯해 1925년 연희전문 교수로 오는 조병옥의 것이기도 했는데, 특히 장덕수는 동아일보 주필(주간)이라는 지위로, 1920년 4월 1일 창간 사설 「主旨를 宣明하노라」(1920.4.1.)를 발표한 이후 1923년 4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사설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사설을 통해 장덕수도 자유방임주의로 대변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며 정치적 자유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도 주장했다. 그리고 세계 개조의 원리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을 피력했다. 토론자의 생각에 고하의 사상도 동아일보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장덕수 등과 사상적 교류를 밀접히 하지 않았을까 한다.

넷째, 발제자는 고하가 1925년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1회 범태평양민족회의에 조선 대표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돌아와 8월과 9월 동아일보에 연속해서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를 발표했다고 확인했다. 여기에서 고하는 미소간의 냉전을 예지하는 등 탁월하게 세계적 흐름을 파악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예지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확인을 필요로 한다.

송진우의 글, 1935년 6월 1일에 발간된, 삼천리 제7권 제5호의 “교우록(交友錄)에 따르면, 고하는 당시 이승만과 서재필을 만났고 고하는 이승만의 안내로, 하와이 해안의 조용한 빌리지에서 서재필과 함께 약 20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시사와 토론

을 나누었다고 피력했다. 고하의 세계사적 인식은 이때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한다.

고하는 1930년 5월 1일에 발간된 삼천리 제6호에서 사형폐지론을 주장했는데, 그의 논지에는 민족적 접근이 없고 정의로운 국가관만 존재한다. 토론자가 볼 때 고하의 사상은 19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925년 이전의 고하의 주제는 '민족'이었지만, 이후의 주제는 장차 이루어질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

토론자의 의문이나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논문은 탁월한 정치학적 식견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고하 송진우의 사상을 세계적 개념에서 이해하고 공유화시켰다는 점에서 남다른 공헌점이 있다. 고하의 사상 이해의 폭을 그 영역을 넓힌 것에서도 그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찬욱 교수의 오늘 발표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 그 내용의 진위를 해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오늘 논문은 고하 송진우의 사상과 활동이 주제이지만, 큰 틀에서 한국 정치사의 전개를 보려는 발제자의 의도를 확연히 드러냈다고 평할 수 있다.